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음 7월 6일) 제234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日 수출 규제 대비 주력산업 체질 강화

송하진 도지사, 성명서 발표

"경제주권 흔드는 일본 허욕 절대 용납 못해 도내 산업생태계 구축 도정 모든 역량 집중"

충혼각에서 참배를 마치고

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수출규제 성명 발표후 독립운동 충혼각을 방문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전북지역 애국지사들에게 참배 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촉구와 도내 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추진, 탄소소재산업 등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에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5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종속화 하려는 일본의 허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 싸운 자랑스러운 정의실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선조들의 빛나는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도는 정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물론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전북의 탄소산업과 같은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R&D 발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산업은 전북이 일찌감치 키워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핵심 소재산업 중 하나로 국가와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야말로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는데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 역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1조원 이상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북도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방과 의료기기 분야 등 국산 탄소소재 적용 산업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산업은 전북지역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이후 미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열매로 보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는 등 국가사업화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탄소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탄소산업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돼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경제체질 개선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송 지사는 "제가 미국 순방기간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접한 즉시 현지에서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간부진에게 긴급 메시지를 통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특별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확대와 장기화를 대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도, 유관기관, 기업체와 비상대책회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피해기업에 경영안정, 시설자금 지원 등 특별 지원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3개 부처 10개 사업 2732억원 추경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 연 1조원 이상의 규모와 연계해 탄소융합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對) 일본 수출품에 대한 일본 내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신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 확대, 도내 우수상품 해외 박람회 개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 도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합한 '전북형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활력촉진단과 멘토링단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끝으로 "이번 미국 방문은 뉴저지주와의 교류 재개를 비롯해 워싱턴주와의 교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을뿐만 아니라 국제적 전자 상업회사인 '아마존'과 미국 3대 스마트팜 기업의 하나인 '에어로팜스' 등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의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며 미국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日 수출규제 따른 전북도 대책

- 탄소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정무부지사 단장으로 한 수출규제 비상대책반 구성
- 도내 기업 피해시 피해기업에 경영안정 시설자금 지원 등 즉시 시행
- 정부 부처와 연계 유관기관과 협력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국책사업 발굴
- 해외통상거점센터 및 전북형 수출바우처 확대
- 수출활력촉진단·멘토링단 등 운영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

김승환 교육감 "교육과정서 발생한 일이라면 보호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 강조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 한 바를 안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답변이 매우 두루뭉술하다면서 "정치적 기본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일률적 제한보다는 '일부'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최근 타지역의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하다가 성비위자로 몰려 직위해제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구성, 수업, 평가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성교육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면서 "성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과 관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아니라 국제적 성의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국제기준과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자매결연지 美 워싱턴서 '전북마케팅'

송 지사, 아마존 본사 견학 경제협력 방안 논의

북미세계잼버리대회 참관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마케팅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주를 찾아 대선 출사표를 던진 주지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하비브 부지사의 영접을 받으며 전북과의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어 송하진 지사 일행은 워싱턴 주정부가 마련한 상무국 간부와의 간담에서 새만금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지원 정책과 전북의 농업, 기업지원 등 경제협력방안 등을 설명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세계 부호 1위 기업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 본사를 방문해 기업의 경영전략과 근무환경 및 주요 시설 견학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후 송하진 지사는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워싱턴 주 거주 한인동포 회장단, 전북자매결연위원장 등의 초청 만찬간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북미 일정에 나선 송 지사는 뉴저지 주에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로 팜스', 벤처창업기관 SBA 등을 방문하고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주요 인사와 현지 교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김진성 기자